

# 규장각 소장 易學 관련 도서의 현황과 의미\*

김 영 우\*\*

1. 들어가며
2. 규장각 소장 역학 관련 도서의 현황
  - 1) 규장각 소장 한국본 역학 문헌
  - 2) 규장각 소장 중국본 역학 문헌
3. 규장각 소장 역학 도서의 특징과 의미
4. 나가며

## 1. 들어가며

연구를 시작할 때 계획은 규장각 소장 도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역학 문헌의 수입(輸入), 중간(重刊), 표점(標點), 번역(翻譯), 출판(出版) 등의 실상을 분석하여 역학이 조선시대 문화와 사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sup>1)</sup> 규장각 소장 도서의 목록이 모두 정리되어 있고 각 도서에 대한 해제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목록과 해제를 정리하면 조선시대 역학의 흐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가 규

\* 이 논문은 2015년 10월 23~24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경학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한국 경학의 위상과 경서류 문헌: 규장각 소장 經部 자료를 중심으로〉에서 발표한 「규장각 소장 역학 관련 도서의 현황과 의미」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발표 당시에는 중국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한국본 역학 도서도 포함하였다.

\*\* 인제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양학부 교수.

1)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일본 역학을 연구한 대표적 사례는 吳偉明, 2009 『易學對德川日本の影響』, 中文大學出版社 참조.

장각과 규장각 소장 도서의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규장각도서(奎章閣圖書)’라는 명칭과 도서번호 자체도 특정 시기에 임의로 붙여진 것으로, 현재의 목록과 해제 자체에 대해서도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sup>2)</sup>

오래 살펴보지 않더라도 현재의 ‘규장각도서’의 도서번호가 어떤 세밀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정리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규(奎)’와 ‘규중(奎中)’이라는 분류는 각각 한국본도서와 중국본도서를 구분한 것이지만 그러한 구분에 맞지 않는 도서가 상당하다.<sup>3)</sup> 도서의 일련번호 또한 일관된 기준이 엄밀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도서 번호는 기본적으로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을 적용하였다고 하지만 한국본 도서의 경우는 삼경사서를 맨 앞에 배치하지는 않고 있어 중국본의 경우와 다르다. 중국본 도서의 경우도 <奎중>부터 <奎중>까지 89권에 모두 『周易傳義大奎』을 배치하였기에 일단 사부체계의 분류를 따르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엄격하지가 않다. 역경 도서 가운데 왜 『주역전의대전』을 가장 앞에 배치하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역경이 아닌 다른 경전의 차례에도 『주역전의대전』의 이본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특별히 역경을 별도로 묶어 번호를 붙였다고 보기도 어렵다.<sup>4)</sup> 이는 1915년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규장각 도서 정리가 치밀한 작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도서번호는 도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정리된 도서목록집이다. 규장각 도서목록집은 1981년 발간되었던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과 1982년 발간된 『奎章閣圖書中國本綜合目錄』, 그리고 1981년의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을 보완하여 재발

2) 현재의 <규장각도서>라는 명칭과 일련번호의 기입은 1915년 조선총독부 참사관분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참사관분실의 도서정리 작업에 대해서는 김문식 외, 2009 『규장각』,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84-90면 참조.

3) 함영대, 2015 「규장각소장 맹자관본연구」 『한국문화』 70, 72면 참조. 현재 규장각 중국본 도서로 분류된 도서 중 한국본은 844종 14,862책이고, 한국본 도서로 분류된 도서 중 중국본은 33종 374책으로 파악되고 있다.

4) <奎中327>, <奎中442>, <奎中1499>에도 『주역전의대전』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간한 1994년의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이 있다.<sup>5)</sup> 역학 도서와 관련하여 보면, 1982년 발간된 『규장각도서중국본종합목록』에 포함되었던 도서들이 다수 한국본 도서목록집에 변경되어 수록되었다는 사실이 1994년의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이 그 이전의 목록집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이는 도서목록집을 발간 하던 1981년과 1982년 당시 중국본과 한국본의 분류 기준을 간행 국가로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1915년 일제의 분류 기준인 원저자의 국적을 그대로 따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은 것이다.<sup>6)</sup> 그리하여 <奎中>으로 분류되었던 도서 다수가 1994년 한국본 종합목록에 실리게 되었다. 아쉬운 점은 1982년에 발간된 중국본 도서목록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본 도서를 검색할 때는 1994년 간행된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을 참조하여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sup>7)</sup>

그런데 도서 목록을 활용하여 규장각도서 가운데 역학 관련 도서의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규장각에 소장된 역학 도서들이 조선시대에 수입, 간행, 출판된 도서를 망라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실제 중복된 도서를 제외하면 규장각 소장 역학 관련 도서는 한국본과 중국본을 합하여도 70여 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 70여 종에도 도서의 정확한 간행연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조선 역학의 실상에 접근하는 것은 더더욱 바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규장각 소장 역학 도서의 실상을 점검하는 것으로 처음의 계획을 대폭 수정하였다.

5) 1994년 발간된 한국본 종합목록은 1987년에 간행된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를 이용하여 1,200항목을 수정하여 재발간하였다.

6) 이는 애초에 1915년의 한국본과 중국본 분류가 간행 국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저자의 국적을 따라 분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915년의 규장각 서고 현황을 보면 조선관 중국본과 중국관 중국본을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문식의, 앞의 책, 85면 참조.

7) 1994년의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도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규장각 도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목록에만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 2. 규장각 소장 역학 관련 도서의 현황

### 1) 규장각 소장 한국본 역학 문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역학 관련 도서는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의 역류(易類)이다. 총경류(總經類)나 개인별 문집에도 역학 관련 저술이 있지만 편의상 여기서는 제외하였다.<sup>8)</sup>

먼저 역학 관련 도서 가운데 한국에서 간행된 도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1994) 易類

번호	도서명	저자	간행시기
1	『啓蒙圖說』〈奎 1128〉	徐命膺	미상
2	『大易理象』〈奎 1464〉	미상	미상
3	『盤谷先生人易』〈奎 11628〉	成以心	正祖 3년(1779)
4	『山天易說』〈古 1322-3〉	金相岳	高宗 16년(1879)
5	『誠齋先生易傳』〈奎중 1553~1554〉 *	楊萬里(南宋)	미상
6	『星湖先生易經疾書』〈奎 4909〉	李瀛	미상
7	『易圖』〈奎 9884〉	柳贊	宣祖 9년(1576)
8	『易本義』〈奎중 986~988〉 *	朱熹(宋)	영조 30년(1754)
9	『易象說』〈奎 5315〉	曹好益	미상
10	『易義窺班』〈奎 4523〉	李玄錫	미상
11	『易次考』〈古 1322~7〉	申綽	1932
12	『易學啓蒙』〈奎중 2234〉 *	朱熹(宋)	미상
13	『易學啓蒙段釋』〈奎 552〉	미상	미상
14	『易學啓蒙覆釋』〈奎 1322~4〉	金楷 <sup>9)</sup>	光武 3년(1899)
15	『易學啓蒙要解』〈奎 553〉	世祖 撰 <sup>10)</sup>	세조 11년(1466)
16	『易學啓蒙集箋』〈奎 557〉	徐命膺	英祖 48년(1772)

8) 총경류에 포함된 중요 역학 도서로는 이황의 『三經釋義』〈奎 11489〉, 정조의 『三經四書正文』〈奎중 561〉, 『五經百選』〈奎 29〉 가운데 역경 부분 등이 있다. 또한 이황의 『啓蒙傳疑』〈奎 1093〉는 易類가 아닌 子部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개인문집에 포함된 역학 관련 저술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규장각 소장 역학 관련 도서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역학 관련 저술에 관한 재목록화 작업이 필요하다.

17	『易學圖說』〈奎 996〉	張顯光	仁祖 23년(1645)
18	『易學緒言』〈奎 5592〉	丁若鏞	미상
19	『易學傳義考』〈奎 4669〉	미상	미상
20	『易解參考』〈古 1322-11〉	柳正源	哲宗 3년(1852)
21	『五位龜鑑』〈奎 3160〉	石之珩	孝宗 4년(1653)
22	『周易』 <sup>11)</sup> 〈古 1322-9〉	沈大允	미상
23	『周易』〈奎중 1497-2〉 *	程子(宋)	미상
24	『周易』〈奎중 1497-1〉 *	朱熹(宋)	미상
25	『周易』〈奎중 1498〉 *	胡廣(明)	미상
26	『周易講義』〈奎 4532〉	正祖	정조 7년(1783)
27	『周易經傳大文』〈奎중 2227〉 *	程頤(宋)	세종
28	『周易經傳纂註』 〈古貴 181.111-J989-v.5〉	董眞卿(元) <sup>12)</sup>	미상
29	『周易大文』〈奎중 1512〉 *	미상	미상
30	『周易本義啓蒙翼傳』〈奎중 1719〉 *	胡一桂(元)	숙종 13년(1687)
31	『周易本義口訣附說』〈奎 4296〉	崔岊	宣祖
32	『周易四箋』〈奎 4918〉	丁若鏞	純祖 8년(1808)
33	『周易諺解』〈奎 3526〉	宣祖 命撰	미상
34	『周易傳義大全』〈奎중 1505-2〉 *	胡廣(明)	英祖
35	『周易正文傳義節要』〈古 1322-10〉	미상	미상
36	『周易質疑』〈奎 5256〉	李德弘	미상
37	『周易集解』〈奎 12008〉	金邦翰	1918
	『周易集解』〈奎中 1686〉 *	金邦翰 <sup>13)</sup>	미상

\* '〈奎중〉'으로 분류된 한국판 도서

- 9)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1994)에는 金宏弼로 나와 있으나 이는 金楷(1633~1716)의 誤記이다.
- 10) 세조가 자신이 지은 『역학계몽요해』를 崔恒, 韓繼禧에게 교정하게 하여 간행한 책이다. 최항과 한계희가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는 『易學啓蒙補解』라고 명명하였다.
- 11) 본래 명칭은 『周易象義占法』이다. 여기서는 목록의 제목을 따랐다.
- 12) 도서목록에는 미상으로 나와 있으나 董眞卿(元)의 저술이다. 『周易會通』이나 『周易經傳集程朱解附錄纂註』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다.
- 13) 도서목록에는 미상으로 나와 있으나 김방한의 『주역집해』〈奎 12008〉와 동일본이다.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의 易類 도서 중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간행된 역학 관련 도서는 37종이 확인된다.<sup>14)</sup> 이 중에서 우리나라 학자에 의해 새롭게 저술 편찬한 것은 26종이고 나머지 11종은 중국 도서를 조선에서 재간행한 것이다. 우리나라 학자가 저술한 26종 가운데 『易學啓蒙要解』, 『周易諺解』, 『周易講義』 3종은 임금의 명에 의해 편찬된 것이고, 『大易理象』, 『易學啓蒙段釋』, 『易學傳義考』, 『周易正文傳義節要』의 4종은 저자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들 7종을 제외하면 순수 개인 저술은 『易圖』(유빈, 1520~1591), 『周易口訣附說』(최립, 1539~1612), 『周易質疑』(이덕홍, 1541~1596), 『易象說』(조호익, 1545~1609), 『易學圖說』(장현광, 1554~1637), 『五位龜鑑』(석지형, 1610~?), 『易學啓蒙覆釋』(김해, 1633~1716), 『周易集解』(김방한, 1635~1698), 『易義窺班』(이현석, 1647~1703), 『星湖先生易經疾書』(이익, 1681~1763), 『盤谷先生人易』(성이심, 1682~1750), 『易學參考』(유정원, 1703~1761), 『啓蒙圖說』·『易學啓蒙集箋』(서명응, 1716~1787), 『山川易說』(김상약, 1724~1815), 『易次考』(신작, 1760~1828), 『周易四箋』·『易學緒言』(정약용, 1762~1836), 『周易』(심대윤, 1806~1872) 등 19종에 불과하다.<sup>15)</sup>

나머지 재간행 도서 11종은 『周易經傳纂註』(古181.111-j989-v.5)를 제외하고는 모두 <奎中>으로 분류된 도서이다. 『周易經傳纂註』(古181.111-j989-v.5)는 현재 목록에 한국본 도서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 책은 중국본 도서로 분류된 童眞卿(元)의 『周易經傳集程朱解附錄纂註』<奎중 4452>와 같은 책으로 조선 전기에 원대의 판본을 복각(覆刻)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10종의 도서는 『규장각도서중국본종합목록』(1982)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4년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이 간행되면서 한국본도서에 수록되었다. 이는 이 도서들이 중국에서 간행되었다가 조선에서 다시 간행된 도서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 재간행한 11종의

14) 易類 목록에 모두 89권의 도서명이 나와 있으나 도서명이 같거나 도서명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동일한 도서는 한 종으로 계산하였다.

15) 이는 물론 규장각 소장 개인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역학 저술을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문집에 수록된 역학 관련 저술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저작으로 묶일 수 있는 규모의 역학 저술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경학자료집성』 역경 편에는 약 180인의 역학 관련 저술이 수록되어 있다.

도서 중 『周易經傳大文』〈奎중 2227〉과 『周易大文』〈奎중 1512〉은 역경과 역전의 원문만을 모아 간행한 동일한 도서이고, 胡廣의 『周易』〈奎중 1498〉과 『주역전의대전』〈奎중 1505-2〉, 주희의 『易本義』〈奎중 986~988〉와 『周易』〈奎중 1497-1〉도 동일한 책이다. 따라서 실제로 조선에서 재간행된 중국 역학자의 도서는 정이의 『역전』,<sup>16)</sup> 주희의 『주역본의』와 『역학계몽』, 동진경의 『周易經傳纂註』, 호광의 『주역전의대전』, 호일계의 『周易本義啓蒙翼傳』, 양만리의 『誠齋先生易傳』 등 7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7)</sup> 특히 이 가운데 정조의 특명으로 간행한 양만리의 『誠齋先生易傳』을 제외하면 나머지 6종의 도서 모두 정이와 주희 역학 관련 저술이라는 점에서 규장각에 소장된 재간행 중국 역학 도서는 정이천과 주희 역학에 국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 2) 규장각 소장 중국본 역학 문헌

1982년 간행된 『규장각도서중국본종합목록』에 수록된 중국본 역학 관련 도서는 〈표 2〉와 같이 모두 46종이 확인된다.<sup>19)</sup> 이 가운데 1994년 재간행된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에서 한국본으로 확인된 7종을 제외하면 규장각 소장 중국본 도서는 모두 39종이다. 그러나 작자와 간행 연도가 미상인 『주역집해』〈奎중 1686〉는 한국본인 김방한의 『주역집해』와 동일한 판본이기 때문에 실제 중국본 도서는 38종이다.<sup>20)</sup>

16) 『周易』〈奎중 1497-2〉은 본래 정이의 『易傳』이다. 1754년 홍계희는 왕명을 받들어 광주에서 『易本義』 12권과 『易傳』 6권을 간행하였는데 이때 간행된 도서가 현재 규장각에 남아 있다.

17) 『御撰周易折中』〈奎 25009〉은 1994년의 한국본도서목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선에서 복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규장각 해제 참조.

18) 동진경의 『周易經傳纂註』 또한 程頤와 朱熹의 주석을 중심으로 『周易』에 관한 諸家의 주해를 모아 편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주 역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19) 易類 목록에 모두 102권의 도서명이 나와 있으나 도서명이 같거나 도서명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동일한 도서는 한 종으로 계산하였다.

20) 38종이라는 숫자는 개인 문집에 포함된 역학 관련 저술을 제외한 것이다.

〈표 2〉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1982) 易類

번호	도서명	저자	간행시기
1	『監本易經』〈奎중 3413〉	朱熹(宋)	光緒 12년(1885)
2	『古周易』〈奎중 4521〉	呂祖謙(宋) <sup>21)</sup>	通知堂本
3	『郭氏傳家易說』〈奎중 4391〉	郭翁(宋)	淸 板本
4	『大易象數鉤深圖』〈奎중 3372〉	張理(元) <sup>22)</sup>	通知堂本
5	『大易緝說』〈奎중 3381〉	王申子(元)	通知堂本
6	『讀易寡過』〈古 181.111-Si4ly〉	沈豫(淸)	道光 12년(1832)
7	『讀易隨筆』〈奎중 5281〉	吳大延(淸)	同治 12년(1873)
8	『讀易匯參』〈奎중 2679〉	和瑛(宋)	道光 23년(1843)
9	『復齋易說』〈奎중 3234〉	趙子欽(宋)	通知堂本
10	『誠齋先生易傳』〈奎중 1553〉 *	楊萬里(南宋)	미상
	『誠齋易傳』〈奎중 4637〉 *		1774
11	『新刻來瞿唐先生易註』〈奎중 2842〉	來知德(明)	崇禎 16년(1643)
	『新刻來瞿唐先生易註』〈奎중 4739〉		淸 板本
	『梁山來知德先生易經易註』〈奎중 4695〉		淸 板本
12	『新刊官版周易本義』〈奎중 4339〉	朱熹(宋)	萬曆 28년(1600)
13	『御案易經備指』〈-叢古181.1-C47e〉	鄒聖脈(淸)	嘉慶 3년(1798)
14	『御撰周易折中』〈奎중 2645〉	李光地(淸)	康熙 54년(1715)
15	『易芥』〈奎중 5318〉	陸振奇(淸)	乾隆 16년(1751)
16	『易經句解』〈奎중 4369〉	李盤(淸)	淸 板本
17	『易經文捷訣』〈奎중 6411〉	古五岳軒主人(淸)	光緒 15년(1889)
18	『易圖明辨』〈奎중 3379〉	胡渭(淸)	嘉慶 1년(1796)
19	『易例大全』〈奎중 6282〉	榕園書屋主人(淸)	咸豐 11년(1861)
20	『易林』〈奎중 2881〉	焦延壽(漢)	光緒 1년(1875)
21	『易本義』〈奎중 986~988〉 *	朱熹(宋)	英祖 30년(1754)
22	『易象意言』〈奎중 3378〉	蔡淵(宋)	淸 板本
23	『易雅筮宗』〈奎중 338-12〉	趙汝楳(宋)	미상
24	『易義敷言』〈奎중 4620〉	江起蟄(淸)	淸 板本
25	『易義華精』〈奎중 6416〉	徐有珂(淸)	光緒 14년(1888)
26	『易纂言』〈奎중 3382〉	吳澄(元)	萬曆 42년(1614)
27	『易學啓蒙』〈奎중 2234〉 *	朱熹(宋)	미상

28	『周易兼義上經』〈奎중 2783-1〉	王弼(魏) 等	萬曆 14년(1586)
29	『周易經傳大文』〈奎중 2227〉*	程頤(宋)	세종
30	『周易經傳集程朱解附錄纂註』〈奎중 4452〉	童眞卿(元)	通知堂本
31	『周易大文』〈奎중 1488〉*	미상	미상
32	『周易變通解』〈奎중 5156〉	萬裕溪(淸)	光緒 9년(1883)
33	『周易補註』〈奎중 3657〉	德沛(淸) 輯	乾隆 6년(1741)
34	『周易本義』〈奎중 4661〉	朱熹(宋)	同治 4년(1865)
35	『周易本義啓蒙翼傳』〈奎중 1971〉*	胡一桂(元)	肅宗 13년(1687)
36	『周易本義拾遺』〈奎중 4371〉	李文炤(淸)	淸 板本
37	『周易本義正解』〈奎중 4631〉	丁鼎時(淸)	康熙 31년(1692)
38	『周易本義集成』〈奎중 5124〉	熊良輔(元) 篇	通知堂本
39	『周易本義通釋』〈奎중 4341〉	胡炳文(元)	通知堂本
40	『周易傳義大全』〈奎중 1~9〉*	胡廣(明)	미상
41	『周易程氏傳』〈奎중 5252〉	程頤(宋)	淸 板本
42	『周易指』〈奎중 4374〉	端木國瑚(淸)	淸 板本
43	『周易輯聞』〈奎중 3380〉	趙汝樸(宋)	通知堂本
44	『周易集解』〈奎중 1686〉	미상 <sup>23)</sup>	미상
45	『楚蒙山房集』〈古 181.111-An1c〉	晏斯盛(淸)	미상
46	『晦庵先生朱文公易說』〈奎중 2667〉	朱鑑(宋)	通知堂本

\* : '奎중'으로 분류된 한국판 도서

이 가운데 淸代 학자의 도서가 17종이고, 나머지 21종은 한, 송, 원, 명대 학자의 저술이다. 송대 이전 학자의 도서로는 한대 焦延壽의 『易林』과 위진시대 王弼 등의 저술을 수록한 『周易兼義上經』 2권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저작인 焦延壽의 『역림』은 『焦氏易林』〈奎중 4782〉이라는 이본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의 판본은 청대의 것이다. 왕필의 『周易注』는 일본의 경우 독립된 판본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규장각에 소장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sup>24)</sup> 다만 공영달의 『周易正義』와

21) 도서목록에 저자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呂祖謙(宋)의 저술이다.

22) 저자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張理(元)의 저술이다.

23) 저자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김방한의 『주역집해』〈奎中 1686〉와 동일한 책이다.

24) 일본 德川 시대에 왕필 『주역주』의 판본이 19종이나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吳偉明, 앞의

함께 『周易兼義上經』(奎中 2783-1)에 합본되어 명대에 간행된 것이 남아 있다. 규장각 도서에 왕필의 『周易注』가 한 권도 소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다소 의외이다. 물론 왕필의 저작뿐 아니라 京房의 『京氏易傳』, 郭京의 『周易舉正』, 李鼎祚의 『周易集解』와 같은 漢代의 대표적인 역학 도서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sup>25)</sup>

송대 이전의 도서와 비교하면 송, 원, 명의 도서 종류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조선에서 통행되었던 도서를 제외하면 송, 원대 도서 대부분은 納蘭性德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通志堂本 도서들이다.<sup>26)</sup> 따라서 통지당본을 제외하면 청대 이전의 역학 도서는 『周易兼義上經』, 吳澄(元)의 『易纂言』, 來知德(明)의 『易注』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역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내지덕의 『易注』 이본 3책이 남아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지만,<sup>27)</sup> 북송대 소식의 『蘇氏易傳』, 호원의 『周易口義』 등 송, 원대의 중요한 여러 역학 도서가 빠져있음을 볼 때 규장각 소장 중국본 역학 관련 도서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8)</sup>

주희의 『주역본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밝혀야 할 것은 『監本易經』이라는 이름의 도서이다. 『주역본의』라는 책은 몇 권 되지 않지만 규장각에는 『감본역경』이라는 이름의 도서가 매우 많다. 그런데 이 책은 제목과 달리 실제로는 주희의 『주역본의』이다. 監本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청대 國子監에서 간행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책이 간행된 시기는 1886년이기 때문에 이 책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조선에서 『주역본의』가 많이 읽혔다고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清代의 역학 관련 도서는 이전 시대의 것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

책, 199-200면 참조.

25) 정약용과 이가환의 대화에서 이정조의 『주역집해』가 거론된 바 있으며, 정약용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책이 『주역집해』였다는 점에서 규장각에 이 도서가 없는 것 또한 의외이다.

26) 통지당본은 『通志堂經解』에 수록된 도서를 말한다. 納蘭性德의 자는 容若이고 호는 楞伽山人이다. 원래의 이름은 成德이었으나 性德으로 개명하였다. 서건학을 도와 『通志堂經解』를 편찬하였다.

27) 내지덕 역학의 조선 후기 수용과 전개에 대해서는 김영우, 2015 「조선후기 내지덕 역학의 수용과 비판」 『인문논총』 72-1 참조.

28) 日本 徳川時代に 청대 이전 중국본 역학 관련 도서가 70여 권이고 청대 도서를 합하면 209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규장각 도서가 얼마나 빈약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도서들이 정확히 언제 규장각 도서로 편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대 역학 도서로는 胡渭의 『易圖明辨』이 눈에 띄지만, 王夫之의 역학 저술이나 惠棟, 張惠言 등의 역학 저술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 후기 역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毛奇齡의 역학 저술인 『仲氏易』도 모기령의 개인문집인 『西河文集』에 수록되어 있을 뿐 독립된 판본으로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이광지의 『어찬주역절중』은 청대에 간행된 것으로 정조 연간 많이 읽힌 도서 중 하나지만 남아 있는 책이 많지는 않다. <奎중 2645>와 함께 <奎 25009>로 분류된 『어찬주역절중』도 확인되는데 둘은 동일본 도서이다. 이 책이 조선에서 언제 복각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3. 규장각 소장 역학 도서의 특징과 의미

고려말 정이의 『역전』이 전래된 이후 조선 중기까지는 『주역』을 해석하는 데 정이의 『역전』이 기준서 역할을 해 왔다. 주자의 학문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고려 말 이후 이어져온 정이의 의리역 중심의 전통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특히 세조의 명에 의해 만들어진 『주역』의 口訣에서도 주자의 주석보다는 『程傳』을 따르라는 세조의 견해가 반영되었다.<sup>29)</sup> 이러한 경향은 퇴계에게도 이어졌다. 퇴계는 주희의 『본의』를 중시하면서도 괘효사에 토를 달거나 해석할 때는 『정전』을 표준으로 하였다.<sup>30)</sup>

하지만 주자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역학에서도 정이 『역전』보다는 주자의 『주역본의』를 중시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퇴계의 문인인 조호익(1545~1609)이 『본의』와 『정전』을 참고하면서도 퇴계와 달리 상수역학의 방법론을 적극 활

29) 우정임, 2009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8면.

30) 엄연석, 2013 『조선전기역철학사』, 한국연구원, 471면. 김인철은 퇴계가 『본의』보다 『정전』을 표준으로 삼았던 것은 세조 이후의 『정전』 존숭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추론하고 있다.(김인철, 2005 『퇴계와 지산의 『주역』해석』, 『퇴계학과 한국문화』 36, 13면)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보다는 퇴계 역학의 목표가 의리적 도덕 실천에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용한 것이나, 『주역』의 구결과 언해 작업에 참여했던 최립(崔崧, 1539~1612)이 정이의 『역전』을 중심으로 구결이 만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周易本義』만을 중심으로 『周易本義口訣附說』을 편찬하여 獻上한 것은 퇴계 이후 역학 연구의 변화를 반영한 사례이다.<sup>31)</sup> 17세기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발언은 『정전』 중심에서 『본의』 중심으로의 변화를 확정짓는 것이기도 하였다. 송시열은 정이의 『정전』은 『周易』과 별도로 정이가 자신이 생각하는 의리를 저술한 것일 뿐 『周易』에 대한 주석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다.<sup>32)</sup> 『주역』이란 근본적으로 占筮로서의 기원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주역』 해석을 위해서는 먼저 象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희 역학의 견해를 宋時烈이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7세기 이후 정이 『역전』에서 주희의 『주역본의』로의 변화가 감지되지 만 그렇다고 『역전』이 아닌 『주역본의』가 단독으로 읽힌 것은 아니었다. 조선 시대 내내 정이의 『역전』은 외면받지 않고 주희의 『주역본의』와 함께 중시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정이의 『역전』이나 주희의 『주역본의』가 독립되어 읽히기보다는 合本으로 간행되어 읽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규장각 소장 역학 관련도서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정이의 『역전』과 주희의 『주역본의』를 합본한 胡廣의 『周易傳義大全』이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sup>33)</sup>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주역전의대전』은 판본만 35종류이며 약 200권 이상의 서로 다른 도서가 있다.

31) 『주역』의 언해 작업은 선조 21년(1588)에 완성하였다. 이때 발간된 『주역언해』는 『정전』의 구결을 중심으로 하고 『본의』의 구결과 해석은 보충하는 방식으로 편집하였다.

32) 宋時烈, 『宋子大全』 92, 書「答金仲和」(丁巳四月六日) “承欲讀周易。甚善。此書。以程傳求之。則愈久而愈難。如以本義。則視他書尤簡易。如乾之初爻。最在一卦之下。故其象爲潛龍。而人之筮得此爻者。不可施用也。如程傳則未知爻當如是耶。人當如是耶。朱先生於此屢與學者言之矣。高明讀時須分別於傳義之間。毋令相混。而於傳則不以易看。別以一義理求之。如胡傳之於春秋。則自與經。兩無所妨矣。”

33) 세종 1년 『성리대전』 『사서오경대전』이 수입되었는데 『주역전의대전』은 바로 『오경대전』의 일부이다. 이른바 傳이란 정이의 『역전』을 가리키고, 義란 주희의 『본의』를 가리킨다. 『주역전의대전』은 경문에 있어서는 『역전』의 체제를 따랐다. 그런데 大全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두 사람의 주석 이외에도 정주 후학의 성과들도 흡수하여 주석으로 붙였다. 이 책은 수입 직후 조선에서 간행되었으며 이후 조선 후기까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재간행 되었다.

『주역본의』와 함께 주희의 대표적 저술은 『易學啓蒙』이다. 송대 도서역의 난해한 이론을 서술하고 있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책이지만 『역학계몽』에 대한 관심은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세조는 『易學啓蒙要解』를 지어 간행하였고, 이황은 『啓蒙傳疑』라는 『역학계몽』 비평서를 남겼다. 이외에도 작자 미상의 『易學啓蒙段釋』, 『易學啓蒙要解』와 『易學啓蒙段釋』을 참고하여 만든 金楷의 『易學啓蒙覆釋』, 정조의 명에 의해 서명응에게 편찬한 『易學啓蒙集箋』에 이르기까지 『역학계몽』 연구는 독립된 연구 분야로 이어져 왔다. 그런데 『역학계몽』의 경우도 『주역본의』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판본으로 남아 있는 책은 『역학계몽』(奎中 2234) 한 종밖에 없다. 대신 규장각에는 胡一桂(元)가 새롭게 편집한 『周易本義啓蒙翼傳』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이 책들은 모두 조선에서 재간행된 것으로 이황의 주도 하에 지방에서 간행한 것이다.<sup>34)</sup>

그 밖에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에는 빠져있지만 역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저술은 『周易參同契』 관련 저술이다. 『주역참동계』는 漢의 魏伯陽이 쓴 책이지만 주희가 『周易參同契考異』라는 주석서를 쓴 바 있으며 여러 주석서가 조선에서 여러 차례 간행되었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이다. 현재 규장각 소장 도서에는 주희의 『周易參同契考異』는 보이지 않고 後蜀의 彭曉가 주석한 『周易參同契通眞義』, 원대의 陳致虛가 주석한 『周易參同契分章註』, 송대 陳顯微가 주석한 『周易參同契解』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이 본격적으로 왕실 도서관의 기능을 하게 된 시기가 18세기 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규장각 소장 도서의 검토를 통해 조선 역학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려 한다는 시도는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일제 강점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규장각 도서조차 온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규장각 소장 역학 도서를 통한 조선 역학 연구라는 목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실현이 가능할 것이며, 우선은 규장각에 소장된 역학 도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34) 16세기 이후 사림의 성장에 따라 출판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관아로 옮겨 오게 되는데 퇴계의 『계몽전』나 호일계의 『주역본의계몽익전』은 바로 지방 관아에서 간행된 저서이다. 16세기 지방 관아의 서적 간행 양상에 대해서는 우정임, 앞의 논문, 146-158면 참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도 규장각 소장 도서에 관한 목록 작업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역학 도서에 한정하더라도 현행 도서목록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본과 한국본을 각각 나누어 목록을 만들고 해당 도서들을 수록하였지만, 중국본과 한국본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 도서를 목록에 수록한 경우에도 중국본 목록과 한국본 목록의 설명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 또한 도서목록의 통일된 서술 체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목록을 통해서는 소장 도서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발행 국가, 발행 기관, 편찬자 등에 대한 표기도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규장각 소장 역학 관련 도서 전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퇴계의 『계몽전의』는 역학 관련 저술이 분명한데도 易類 목록에 누락되어 있는가 하면, 김방한의 『주역집주』와 같이 조선 후기 학자의 저술이 명백한데도 <奎中>도서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선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었던 통행본 『주역』 저술들에 관해서도 간행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간행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사된 규장각 소장 도서 현황에 대한 검토는 조선 시대 역학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유의미한 점을 시사한다. 역학 분야에 있어서도 성리학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확인한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정이와 주희의 『역전』과 『본의』를 합본한 『주역전의대전』이 가장 많았던 것도 이를 입증해 주었다. 하지만 정이와 주희의 『주역』 해석에 관한 입장 차이를 의식하여 17세기 이후 조선 학계에서 정이의 의리역학과 주희의 상수역학을 둘러싼 미묘한 갈등이 있었음에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명대 상수역학자 내지덕의 『주역집주』가 여러 본 소장된 사실은 17세기 이후 조선 역학에서 주희가 『주역본의』에서 피력한 상수의 중요성이 일정 부분 수용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역학이 경학뿐 아니라 의학, 군사, 정치를 비롯하여 예술분야에까지 응용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규장각 소장 도서의 역학 도서는 경학 부분에만 치우

쳐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본 『주역』 도서에 대한 표점 작업을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德川시대의 경우 18명의 유학자가 14종의 표점 작업을 시행하였다. 물론 표점 작업의 대상 도서는 주희의 『주역본의』와 『주역전의대전』이 중심이었지만, 왕필의 『주역주』나 鄭玄의 『周易正義』까지도 다수의 표점본으로 간행되었다. 이러한 표점본의 출현은 『주역』을 보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규장각 소장 도서 가운데 표점본과 번역본은 국왕의 주도로 만들어진 『周易口訣』과 『周易諺解』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도 관심을 두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 4. 나가며

지금까지 규장각 소장 역학 관련 도서의 기초 자료(목록과 해제)를 중심으로 규장각 소장 역학 도서의 현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동안의 목록 작업과 해제 작업의 도움을 받아 이제 겨우 규장각 소장 도서를 대상으로 연구의 첫 걸음을 뗄 수준이지만 판본과 도서의 종류가 많지 않다 해도 연구자 개인이 전체 자료를 모두 확인하고 검토하기에는 벅찬 양이다. 또한 규장각 역학 도서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개별 학자들의 문집을 통해 확인되는 중국본 역학 자료의 수도 적지는 않다. 규장각 소장 도서의 구체적 면모를 밝힌다 해도 근원적인 한계는 남아 있는 것이다. 결국 규장각 소장 중국본 역학 도서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는 규장각 이외에 국내에 산재한 역학 관련 도서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조선 역학, 규장각, 역경, 『주역본의』, 『주역전의대전』

투고일(2016. 5. 16), 심사시작일(2016. 5. 24), 심사완료일(2016. 5. 28)

<Abstract>

## The Current Status and Meaning of I-ching Related Books Housed in Kyujanggak

Kim Young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ching(易學) related books housed in Kyujanggak and to identify its development aspects in the history of I-ching in Joseon era focusing on the catalogue of book collection and bibliographical notes of Kyujanggak.

I-ching related books housed in Kyujanggak are about 80 classifications including 37 classifications from Korea and 38 classifications from China, which is small in scale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Of 37 classifications from Korea, those written by Korean scholars are 26. The rest 11 classifications from Korea are originally written by Chinese scholars and republished in Korea, most of which are written by Cheng Yi and Zhuxi centered on Jeongju (程朱) I-ching (易學). It can be confirmed by the fact that *Zhouyizhuanyi* (周易傳義大全), a single volume edited by Huguang in Ming from the combination of Cheng Yi's *Yizhuan* (易傳) and Zhuxi's *Zhouyi Benyi* (周易本義) is the majority of I-ching related books housed in Kyujanggak in this study.

38 classifications from China are mostly written by scholars in Qing era. Though some of them are written before Qing, the period of publications is still in Qing era. Of I-ching related books from China, the largest number of their publications is Zhuxi's *Zhouyi Benyi* (周易本義) named as *Gambonyeokgyeong* (監本易經).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publication year of *Gambonyeokgyeong* is 1886, there is difficulty in identifying regular trend of I-ching related books in the late Joseon through this book. One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in I-ching related books from China is the fact that there are three classifications written by Lai Zhide (來知德). Lai Zhide together with Mao Qiling are the scholars who affected significantly the I-ching (易學) world in the

---

\*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Inje University.

late Joseon, and it can be of some interest to see there are a few works written by Lai Zhide while there are no I-ching related works written by Mao Qiling.

Through this study, we managed to draw a layout on the size and content of I-ching related books housed in Kyujanggak. However, since this study is only limited to independent volumes related with I-ching housed in Kyujanggak, there is a given limitation in this study. To ge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I-ching in Joseon era, it is necessary to do the research in depth of the history of I-ching in Joseon as well as to examine I-ching related works printed in individual collections housed in Kyujanggak in the future.

**Key Words** : I-ching, Kyujanggak, *ZhouyiBenyi* (周易本義), *Zhouyizhuanyi* (周易傳義大全)